아슬아슬 통행로…등굣길 '위험천만'

광주남구 대촌중 인근 공사장 소음·먼지 민원 봇물

학교 진입로 폐쇄…임시방편 보행로 안전사고 우려

광주 남구 지석동 대촌중학교 인근 공사현장에서 소음과 비산먼지, 통행로 문제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진입로를 폐쇄해 임시방편으로 우회도로에 통행로를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통행로 폭이 비좁은데다, 통행로와 지나가는 공사 차량 간격이 1m도 채 되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서다.

3일 오전 남구 지석동 대촌중학교 진입로.

'학생 통행로 주차금지'라는 주차콘이 눈에 띈다. 이 주차콘은 대촌중학교 진입로부터 입구까지 300여m 돼 보이는 구간에 줄이어 세워졌다. 이 구간 전체는 비포장도로다. 때문에 공사 차량으로 인한 비산 먼지가 수시로 발생해 등교하는 학생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기 일쑤였다.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곳 진입로는 폭 자체가 좁은 탓에 공사 차량도 겨우 한 대 정도 지나는 모습이었다.

특히 학생들이 통행로를 걷는 중에 대형버스가 주차콘과 부딪혀 주차콘이 나가떨어지는 광경도 목격됐다. 더구나 양 쪽으로 차량이 들어서면 서로 뒤엉켜 일대가 순간 혼란을 빚기도 했다. 1m도 채 안 되는 학생 통행로는 성인 남성 두 명이 걷기도 버거웠다. 그래서 인지 이 곳을 지나던 여학생들은 통행로 밖 차로로 나와 걸었고,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 경적소리에 순간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또 등굣길 이후 덤프트럭은 통행로 길목에 떡하니 주차해 이곳이 학교로 이어지는 길목이 맞는 지 의심스러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주변 공사현장의 먼지와 소음, 통행로 문제로 인해 학생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남구는 이같은 민원에 따라 시공사측에 주차콘 설치를 요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한 학부모는 "사전 안내도 없이 갑작스럽게 학교 출입로를 폐쇄했다"며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수시로 드나드는 공사차량 소음으로 학생들은 매일 등하굣길이 지옥길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관할 행정기관인 남구는 허가만 내주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폐쇄해도 되는 것이냐"며 "시공사가 만들어놓은 우회도로 확인은 해봤나, 학생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대처할 생각이냐"고 불평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학부모, 시공사 대표와 구청 관계자가 일정을 조율해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사용 통로는 기준이 없다. 공사 중 임시 통행로는 최대한 안전한 방안으로 검토해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광주 남구 대촌중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학교 진입로가 폐쇄된 가운데 한 학생이 임시도로 옆에 마련된 비좁은 통행로를 위험스럽게 지나가고 있다.

3층 공사장서 떨어진 벽돌 맞아 건물주 숨져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1층 상가 주인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건물에서 1층 상가 건물주인 A(66)씨가 3층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25분께 치료를 받다 숨졌다.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는 창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돌이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그 순간 1층 상가 사무실에서 나오다 위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낙하물 보호막이나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 업자, 작업자 등 총 3명을 입건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아이돌 콘서트 티켓 사기 판매 2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인터넷 상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3월11일부터 한달간 특정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15)군 등 15명으로부터 35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받았으며 '곧 택배로 보내겠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도피 행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를 할 때는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거래자의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사기피해 예방 신고사이트에 조회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기자

'청산가리 10배'…여수서 맹독성 파란고리문어 또 발견

여수 앞바다에서 청산가리 10배의 독성을 가진 파란고리문어가 잇따라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오전 10시께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앞바다에서 10㎝ 크기의 파란고리문어가 통발에서 발견됐다.

파란고리문어를 발견한 박모(58)씨는 "색깔이 특이해 애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위험한 문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여수에서는 지난달 15일 남면에서 낚싯배 그물에 파란고리문어가 잡혔다.

파란고리문어는 주로 남태평양 등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며 복어 독으로도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해 물리면 위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파란고리문어가 자주 출현하는데 독성이 강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윤장현 전 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유죄

법원 "공천 대가 인정"…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로 거액을 송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49)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5천만원 형이 유지됐다.

또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사건은 병합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4억5천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었다는 윤씨의 주장과 달리 김씨가 메시지에 '숙제', '미션'을 언급하는 등 호의로 송금하는 상황으로 보기 힘든 정황들을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 도움을 기대하고 공기업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했던 혐의는 나중에 완곡하게 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점, 업무 관련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는 최초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액을 요구하며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메시지에서 '큰 산'을 윤씨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주장하나 김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메시지들을 볼 때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 자녀라는 말에 속아 사칭범 자녀 2명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윤 전 시장이 1심에서 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오승지 기자

광주동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광주 동부소방서는 시민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오승지 기자

"이놈아, 침 안 뱉었다고!"

짝짝이

○…길을 걷던 중년 남성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오해받아 말다툼까지 벌어져 폭행을 행사한 80대가 경찰서행.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80)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행인 B(55)씨의 등을 지팡이로 1회 때린 혐의.

○…경찰 관계자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A씨가 길바닥에 침을 뱉다 B씨의 신발에 살짝 튀었던 것이 발단이 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경찰서까지 출석해야겠냐"고 한마디. /김동수 기자